

##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소현지	학과(전공)	기술경영학부
파견대학	남양공과대학	파견(참여)기간	2023.01.09 - 2023.05.12

### 1. 출국 전 준비사항

#### A. 프로그램 지원과정

교내 선발 이후 파견 학교(남양공대)에 지원합니다. 영어 성적, 학교 성적, 여권 등 준비할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 (1) 선발 과정: 수강 가능한 과목 및 학과에 대한 안내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 (2) 선발 이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해야 할 일을 메일로 수시로 보내주니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상으로 설명회도 진행해서 교환학생 학생들이 싱가포르로의 입국 및 남양공대 파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코로나 규제, 비자 신청 등의 내용도 매우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 수강신청 관련 내용도 알려줬습니다.

####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비자 O.

신청 관련 절차는 학교에서 안내 메일이 옵니다. 지원 시 기입했던 메일과 남양공대에서 만들어주는 메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메일에 나온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절차가 크게는 2단계, 2단계에서도 세부적으로 3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2월 중순쯤 1단계를 시작했고, 2단계는 싱가포르에 도착 후 하는 편이 낫다고 나와있었으나 저는 한국에서 하고 갔습니다. 차이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비자 발급을 위해 ICA office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남양공대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세션을 마련해 남양공대로 ICA 직원들이 와서 비자 발급을 도와줍니다. 해당 세션 참석 신청관련 안내도 메일로 오니, 메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1단계는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서류 제출 및 결제였고, 2단계는 서류 제출, 결제, 비자 발급 3단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ICA 직원들을 만나 대면으로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을 진행하기 전, 결제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결제는 1단계에서 3만원, 2단계에서 6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ICA 직원들에게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내는데, 다행히 같은 장소에 촬영할 수 있는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1월 20일에 비자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 ICA Office에 직접 가서 받으면 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12월에 확인했을 때, 2월 중순까지 예약이 차 있어서 그 이후에 가능했습니다. 꽤 오래 걸

리게 되니 되도록 학교에서 진행하는 세션에 참석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갈 때는 최저가 항공(티웨이)으로 갔는데, 조금 늦은 시기에 예매해서 3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좁아서 불편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스쿠트 플러스로 예매해서 약 50만원에 예매했고, 저가항공 비즈니스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싱가포르 보험만 가입했습니다. 약 28만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주변 동남아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그때 그때 가입해서 회당 약 2~3만원정도였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수강신청은 조금 복잡합니다. (1. 수강할 과목 선택 2. 학교에서 수강 허가 3. 수강 희망 순위 작성 4. 학교에서 임의 배정)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후 수강 변경 기간에 시간표를 변경할 수 있고, 앞의 2번에서 허가 받지 않은 과목으로 추가로 듣고 싶다면, 수강 허가를 받은 후 시간표에 넣을 수 있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경영학과 과목과 중국어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카이스트와 강의 방식의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과제가 확실히 적었습니다. 중국어 수업에는 교환학생들이 많았고, 학생 참여형 수업이라 현지학생 및 교환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과제, 참여도 및 팀프로젝트, 퀴즈, 시험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출석체크는 하지만 지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중간고사 대신 퀴즈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퀴즈는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거나 오픈북이었습니다. 팀프로젝트는 수업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본인 파트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서 수월했습니다. 조원평가도 있습니다. 강의평가도 안내가 오면 연결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연구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3. 비용**

A. 기숙사 (숙박)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B. 식사

### (1) 기숙사 캔틴

기숙사 1층 혹은 근처에 캔틴(푸드코트)이 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 인도식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가격은 메뉴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3달러, 일반적으로는 5~8달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편은 아니니 식중독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볶음요리나 튀김 요리를 포장해서 먹었습니다. 포장하면 포장용기 비용 0.5달러가 추가되는데, 본인 용기 가져오면 추가비용 없습니다.

### (2) 교내 식당

교내에 식당도 있는데, 주로 노스 스파인 건물에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라 가격은 외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맥도날드, 피자헛, 서브웨이, 백종원 비빔밥 등이 있습니다. 노스 스파인은 아니지만 유명한 마라탕 집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인도 일부러 먹으러 온다고 하니 드셔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외식

외식은 가게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꽤 비쌉니다. 푸드코트에 가면 저렴하고, 일반적인 식당은 값이 꽤 나갑니다. 한 그릇 음식이면 15달러 내외 정도이고, 요리면 20달러는 넘어갑니다. 저는 주로 학교 근처 쇼핑몰(주룽포인트)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 (4) 배달

배달은 그랩, 푸드판다, 딜리버루 3가지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저는 그랩과 푸드판다를 이용했는데, 주문 가능한 식당이 다르기도 하고 간혹 배달비가 다릅니다. 가격은 외식비+배달비인데, 배달비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피크시간에는 배달비가 올라가고 널널한 오후 3~4시 경에는 배달비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 C. 기타 생활비

학교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버스,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니 교통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거리에 따라서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정해진 가격은 없는데, 가장 가까운 쇼핑몰까지는 왕복 2달러 정도 듭니다.

에어컨은 에어컨 카드를 충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울 때만 켜고, 일주일에 약 10달러 사용했습니다. 에어컨 카드를 충전하려면 현지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에어컨 카드 충전 기계가 현지 NETS 카드만 받습니다. NETS 카드 혹은 현금만 받는 곳이 꽤 있고, QR페이가 주로 쓰여서 만들면 편하긴 합니다만, 발급 과정이 꽤 오래 걸리고 귀찮습니다. 그냥 현지인들에게 부탁해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시설은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에어컨 카드 충전기도, 기숙사 현관 키 탭 등등 노후화 되어 고장 난 기계가 많지만 보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월에 처음 갔을 때 고장 나 있던 것들이 5월까지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도 소방기기와 승강기 점검은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은 깨끗하고 사용하기 좋습니다. 테니스장도 있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치기도 좋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구조가 복잡해서 길 찾아가기가 어렵지만 몇 번 돌아다녀 보면 조금 감이 옵니다.

학교는 매우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됩니다. 새벽에 돌아다녀도 안전합니다. 청소하시는 직원분들이 매우 많고 매일 기숙사, 인도, 잔디 등을 청소하셔서 깨끗합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생활하거나 마음 먹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학생들은 많지만 캠퍼스도 그만큼 넓어서 출근시간 버스, 식사시간 식당을 제외하면 보통 한적합니다.

C. 그 외 사항

학교에 버스가 있는데 양쪽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NTU omnibus 앱을 다운받으면 버스 위치 및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가끔 나긴 하지만 유용합니다. 강의실 찾아가갈 때도 해당 앱에 검색해서 찾아가면 강의실을 통과하거나 층을 이동하는 방법도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강의실은 구글맵으로 못 찾습니다.

5. 언어 사용

영어, 중국어를 보통 사용하는데, 영어만 하셔도 지내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중국어로 가끔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국어 못한다고 하면 보통 영어로 말씀해주십니다. 그래도 캔틴이나 식당 직원들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인 중국어는 조금 배울 수 있었습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입실 및 퇴실 관련 안내는 메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기 시작 일주일 전부터 입소가 가능했고 5월 12일까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입소할 때 기숙사 오피스에서 키와 에어컨 카드 등을 받아야 하는데, 8시 30분~4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니 첫 날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에서 알려주기 전에는 기숙사 호실도, 룸메이트도 알 수 없으니 혹시 주말이나 평일 새벽에 도착하신다면 따로 하루 정도 숙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숙사 키를 사용해서 방 문, 화장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기숙사 키는 3일에 한 번 업데이트 해야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기숙사 현관문 열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지만, 어떤 기숙사는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피스에서 업데이트 하거나, 기숙사에 다른 시설(tv라운지, 리딩 룸 등)에서 업데이트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돌릴 때 신권 1달러 동전이 필요합니다. 세탁기 한 번(34분)에 1달러, 건조기 한 번(30분)에 1달러입니다. 세탁기는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 번 옷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서 새로 세탁을 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는 중고 구매 혹은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고 구매는 Carousel이나 교내 중고 구매/판매용 텔레그램으로 합니다. 학기 말에 새로 팔고 가야 하니 불편하지만 거의 낸 돈 그대로 파는 것 같습니다. 대여는 학기가 시작하면 전단지가 붙는데, 전단지 연락처를 통해 대여하면 됩니다. 일정 보증금과 대여료를 내고 사용하고 냉장고는 방문 앞까지 배달해주고 이후에도 다시 들고 갑니다. 대여료가 있지만 편리합니다.

## 7. 학교 생활

할 일을 다 해도 생각보다 학교생활이 널널합니다. 과제도 적고 어려운 내용도 많지 않아서 개인 시간 활용이 좋았습니다. 저는 모든 과목을 월, 화에 몰아서 듣고 남은 날들은 개인 과제, 공부, 여행 등에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고,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현지 한국 학생들이 교환학생들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인이 아닌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에게 친절합니다. 어려운 게 있다면 물어보면 보통 친절하게 알려주니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 도서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리워남 도서관(메인 도서관)과 경영학과 도서관을 사용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괜찮았습니다. 독서실 같은 곳도 있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도서관이든 모든 학생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교환학생 담당 팀 (GEM trailblazer)이 있었는데,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이 팀에서 알려줍니다. OT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메일로도 잘 답변해줍니다. 가끔 부스활동이나 이벤트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교환학생을 현지 학생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다인종 국가여서 그런지 말 하지 않으면 교환학생인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꽤 많고,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이 물어보곤 했습니다.

##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동아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1~5월이 2학기이다보니, 모집하는 동아리도 거의 없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싶다면 싱가포르 1학기에 참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행사들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요리, 베이킹, 만들기, 보드게임, 운동 등 정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난양공대 메일로 관련 내용이 오고 구글폼으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무료이고, 현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저는 베이킹, 요리, 음료수 만들기 등에 참여했습

니다.

## 10. 여행 등 개인 활동

싱가포르는 일주일이면 대부분 가볼 만한 곳은 다 갈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도 싱가포르 관광지 몇 곳 추천해주고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 여행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러 지역 여행 다녀왔습니다. 여자 둘이 혹은 혼자 여행을 가서 웬만하면 사람 많은 관광지위주로 다녀왔습니다. 관광지들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꽤나 호객행위는 많은 편이었습니다. 비행기 표는 정말 싸게 구할 수 있고, 비행 시간도 웬만하면 3시간 이내라서 좋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쇼핑물이 정말 많아서 편리합니다. 학교는 외진 곳에 있지만 버스 타고 한 15~20분 정도 가면 쇼핑몰&지하철 역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보통 그곳에서 구매했습니다.

###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현지 카드를 만들지 않는다면 현금을 상시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안 받는 가게가 간혹 있습니다. 학교 학생증은 NETS flash pay라고 NETS카드와는 다른 건데, 학교 캔틴에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저는 교통카드로도 사용했습니다. 충전은 지하철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비자 혹은 마스터카드도 교통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수수료가 붙습니다.

학생들이 텔레그램을 주로 이용합니다. 교내에 다양한 텔레그램 방이 있어서 에브리타임처럼 활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왓츠앱도 자주 사용하니 깔아 놓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자 사용하듯이 사용하는 느낌이었습니

다. 기존 한국 유심을 이왕이면 정지하지 말고 가지고, 정지한다면 본인 인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만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outlook 인증 방식에 메일이나 싱가포르 전화번호도 미리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송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배달 주문했습니다. 아마존 배달도 되고, 현지인들은 shopee 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마존보다 저렴합니다. 단, 택배 보관소에 CCTV가 없어서 잃어버려도 찾을 방법이 없으니 주의하세요.

## 11. 파견 소감

다른 학교 수업 방식도 알 수 있고 다른 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과 취미활동, 여행 등을 통해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언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좋았습니다.

## 12. 사진 첨부

